

밀그림 그려지는 서울 정비사업 현대 '흑석9' 대우 '흑석11' 눈독

하반기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과 11구역에 각각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분양가 논란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9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가 취소되며 일반분양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연합뉴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흑석9구역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흑석뉴타운은 하반기 정비사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인 만큼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를 지난 2015년 4월 론칭하면서 매대가 3.3㎡당 4500만원 단지에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디에이치를 적용해 해당 생활권역에 최초 최대 유일 아이템을 적용함으로써 선택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 '디에이치' 흑석9 적용 검토
대우, 흑석11 재개발 수주 절실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로 도전장
'분양가 갈등' 둔촌주공 총회 무산**

11구역 재개발사업에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를 내세운 수주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푸르지오 써밋을 입지, 분양가, 마감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조건을 만족하는 단지에만 적용해 왔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전무한 대우건설로서는 흑석11구역 수주가 절실한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서초구 반포3지구 재건축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경쟁을 펼쳤지만 시공권은 결국 삼성물산에게 돌아갔다.

흑석11구역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통과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5층~

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로 이어진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일 임시총회를 계획했지만 조합원간 갈등으로 취소했다.

이곳은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을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3.3㎡당 2970만원을 제안했다. 조합은 최소 3550만원을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둔촌주공재건축의 일반분양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자칫하면 분양가상한제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KB증권,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금융자문

인수합병, IPO, 지배구조개편 등 포괄적 금융자문 네트워크 구축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왼쪽)와 김정철 테크로스위터에너지 및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총괄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은 지난 8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주)테크로스위터에너지·(주)테크로스환경서비스와 포괄적 금융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MOU체결식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과 김정철 테크로스위터에너지·테크로스환경서비스 총괄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테크로스위터에너지와 테크로스환경서비스는 순수·초순수와 같은 공업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 하수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대기오염 방지사업,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업개발, 설계·시공·운영을 하는 종합환경기업이다.

KB증권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테크로스위터에너지 및 테크로스환경서비스와 함께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투자 ▲기업공개(IPO) ▲기

업지배구조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등의 부분을 주관하고 금융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은 전국 기업금융 커버리지 조직인 CI B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며 "고객사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종합환경기업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좋은 파트너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롯데건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본격 분양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전용 21~97㎡, 1163가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상계동 95-3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총 14개 주택형 타입 중 일반에는 ▲21㎡ 1가구 ▲39㎡ 11가구 ▲52㎡A 17가구 ▲52㎡B 17가구 ▲59㎡A 190가구 ▲59㎡B 137가구 ▲84㎡A 210가구 ▲84㎡B 85가구 ▲84㎡C 38가구 ▲97㎡A 15가구 등 10개 타입이 공급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85㎡ 이하 97%)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앞뒤로 서울 4대 명산으로 불리는 수락산과 거북바위로 유명한 불암산이 있으며, 물놀이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 수락산 지구공원, 불암산 둘레길

(18km) 등 집 앞에서 마음껏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1일 해당 1순위, 22일 기타 1순위 청약 접수,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진행되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호반그룹 덕평CC 'H1클럽'으로 리뉴얼 오픈

호반그룹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골프장인 덕평CC를 전면 재단장해 새 이름인 'H1클럽'으로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86년 개장한 'H1클럽'은 코스 변경 외에 그늘집과 VIP 라커룸을

새로 만들고, 로비와 사우나 시설을 개설했다. 8264㎡(2500평) 규모의 최고급 클럽하우스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호반그룹은 새 이름 H1 중 'H'는 명예(honor), 유산(heritage), 상류사회(high society) 등의

앞글자에서 따왔으며, 숫자 '1'은 첫째나 으뜸을 뜻하는 넘버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H1클럽 관계자는 "H1클럽은 뛰어난 접근성과 자연 친화형 골프장으로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며 "새로운 BI와 함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국민은행, 국내 첫 5억유로 커버드본드 발행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
발행금리 연 0.052% 결정

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시행 이후 국내 최초로 법제화 미달리 및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유로화 커버드본드도 최초로 발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발행사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외화 4건(USD 11억·EUR 5억), 원화 7건(2조1200억원)의 법제화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일 5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다. 발행금리는 5년 유로화 스왑 금리에 4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연 0.052%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로부터 최고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아 높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내 흥행에 성공했다. 최종 가산금리는 총 20억 유로를 상회하는 주문을 확보하며 최초 제시한 금리(이니셜가이던스) 대비 10bp 가까이 절감된 40bp로 결정됐다. 쿠폰금리는 제로(0)금리 수준인 0.052%로 확정됐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이중상환청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조달된 이번 발행 자금은 '지속가능 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조달 자금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은 BNP파리바, 시티그룹, CA-CIB, HSBC, JP모건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KB증권이 보조간사(Co-Manager)로 역할을 수행했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서유럽 87% ▲동유럽 11% ▲아시아 2%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